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흐림

제목 : 탱탱볼과 노래 연습

교회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는데 한 박스에 탱탱볼이 아주 많이 담겨 있었다. 탱탱볼이 그렇게 많이 담겨있는 것을 보니 아주 신기했다. 탱탱볼을 주워서 교회에 가니 친구들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몇개만 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교회가 끝나고 할아버지 집에 와서 노래를 연습했다. 다른 노래는 다 안되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은' 이란 노래만 잘되었다. 할머니가 피아노로 반주를 쳐주었는데 높은 음이 올라가는 데가 안 되어서 좀 힘들었다. 연습을 몇번 하니깐 외워지고 자신이 생겼다.

노래를 할 때 힘들었지만 연습을 많이 하니깐 연습하는 것도 재미있어지고 잘해 지니까 신이 났다.

당서초교 2-1 문서진